



## 종조멸도절 종령 법어



오늘은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 삼계의 중생을 모두 건지시겠다는 발원으로 45년 전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도들은 원정종조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힘과 단결로써 수많은 난관신고를 헤쳐 오면서 오늘의 총지종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창종 된 다른 종단과 비교해 보면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만들어 만방에 밀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시려고 한 종조님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감이 들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승작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우리 종단도 이제는 그 동안의 타성에 서 벗어나야 합니다.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대승불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교만한 생각에 얽매어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며 종

단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열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종단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불교교류를 통하여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화방편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우리 총지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 부회장 종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자재보살님의 가지신력과 원정 대성사님의 가지 위신력으로 우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이 합심하여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라야 한다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며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감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종도 여러분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종령 효강 합장

## 불교총지중 대만 타이쥔 재승법회 참가

### 타이쥔 삼보호지회 초청, 대만 불교계와 교류



▲ 대만 재승법회

인선 통리원장과 화평 교육원장, 서강 사무국장이 7월 25일에서 31일에 걸쳐 대만 타이쥔 삼보호지회 왕복진(王福進) 회장의 초청으로 재승법회 참가를 하면서 대만 불교계를 돌아봤다. 이번 방문은 주로 대만 중부지역인 타이쥔을 중심으로 대만 불교계를 돌아보고 평소 총지종과 친분이 있던 불교계 인사들을 방문했다.

재승법회는 타이쥔 삼보호지회 주관으로 매년 7월 보름 우란분절을 전후하여 열리는 공승대회인데 6천 여명의 출가승려와 2만 여명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승법회로서 이름이 나 있다. 이 행사는 법사들의 공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하안거가 끝나는 우란분절에 부모 조상들의

영식을 천도하는 우란분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법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면서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본 종단 참가 인사들은 외국귀빈으로 초대되어 약 3만명의 타이쥔 불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또한 이번 방문 기간 중 신베이(新北)시 세계종교박물관을 방문했다. 세계종교박

물관은 대만 영취산 무생도량의 심도(心道)스님이 2001년 설립했는데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를 한 자리에 모아 보여줌으로써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교 간의 우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본 종단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재개장 준비로 휴관 중이었지만 박물관 측의 특별 배려로 본 종단 3인 만을 위해서 박물관을 개방해 주었다. 아울러 타이쥔의 남림니승원(南林尼僧苑)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비구니 전문도량으로서 70여명의 비구니들이 상주하는 비구니 도량이다. 수십만 평의 부지 위에 건설된 이니승원은 웅장한 건물규모와 정성어린 상주들의 배치로 아름답고 깨끗한 대만 최대의 비구니 도량으로 자부할 만한 곳이었다. 아울러 대만 내외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림 도량 하나만 으로서도 대만 불교의 저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 이번 참가자들의 한결 같은 소감이었다. <2면에 계속>

## 불교총지중 충북 괴산군에 수해 복구 기금 1,000만원 기부

불교총지중(통리원장 인선 정사)은 7월 27일 오후 2시 충북 괴산군청에서 불교총지중 사회복복지금 1,000만원을 괴산군 긴급수해 복구기금으로 기부했다.

대만 재승 법회 출장으로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대신해 총무부장 우인 정사가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최근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괴산군의 수해 긴급 복구 자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우인 정사는 “괴산은 총지중 집중수

련사찰인 중원사가 자리한 인연 깊은 고장입니다. 수해를 입은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기를 총지중 전 교도의 마음을 모아 서원합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총지중 교도들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를 전하며, 복구에 전 군민과 합심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괴산군청=김단비 인턴기자



▲ 괴산 수해 복구기금 전달

### 새로운 종풍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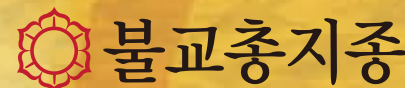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戒)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교총지중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1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합창경연

문수사 마야합창단 | 삼광사 화엄합창단 |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 흥법사 불광합창단

#### 축하공연

총지중 부산 만다라합창단 | 총지중 마산 부림합창단 | 총지중 서울 마니합창단 | 가수 주병선

문의 02) 552 1080~3

www.chongji.or.kr

주최 불교총지중

주관 BBS 불교방송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범불교신문

우리불교 우리교단 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단협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노래로 이루는 화합, 그리고 통일



## 군종교구 제4대 교구장 혜자 스님 취임

“역동적인 군종교구를 만들겠다”



▲혜자스님 제4대군종 교구장 취임식

군종교구는 7월 27일 오후 6시30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3대 교구장 정우스님과 4대 교구장 혜자스님의 ‘제3, 4대 군종교구장 이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4대 군종교구장으로 취임한 혜자 스님은 지난 7월 5일 군종교구 상임위원회에서 복수 추천되어, 임명권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12일 임명장을 받아 7월 25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2대 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

롯해 총지종 총무부장 우인 정사,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주요 종단 스님들과 현역 군종 전원,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구홍모 장군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회향하는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JSA 판문점 무량수전 법당은 남북 분단의 현상인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 전통식 사찰을 건립했고, 625 참전 16개국의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고, 법당 벽에 16개국 국기를 부착함으로써 전몰장병의 값진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며 함께 노력한 군승 법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냈다.

혜자 스님은 취임사에서 “내년은 대한민국 국군에 군승이 파송 된지 50주년인 되는 뜻 깊은 해다. 이에 군승 파송 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미래 군불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승들의 사기증진과 역량증대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소통과 화합이 넘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종교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군승법사들과 군법당 신도 모두가 군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그리하여 종단의 구성원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계종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자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장, 소청심사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도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11년, 2014년 초심호계위원장으로서, 108 산사순례기도회 회주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스님은 108 산사 순례기도회를 운영하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금 1억 보시, 백령도 군법당 복흥사에 신도수송용 승합차 보시 등 군에 10년간 초코파이 420만개, 시가 12억 상당을 보시했다.

용산=김종열 기자

##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

평화대상은 시리아 내전 8만명 구조한 구호단체 ‘하얀 헬멧’



▲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추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애·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시리아 내전 현장

에서 지난 3년간 8만 명을 구조한 구호단체 ‘하얀 헬멧’, 만해실천대상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만해문예대상은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클레어 유(한국명 임정빈) 미국 UC 버클리 한국학센터 상임 교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시상식은 축하공연과 만해스님 기념영상 상영, 신달자 시인의 축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추전 명예대회장 한태식(보광)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주호영, 황영철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구호 단체 ‘하얀 헬멧’의 대표 라이드 알살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총 대신 ‘들’ 짓을 들었

고 피해자가 어느 편이건 상관없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어디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기에 우리 모두 사랑을 사랑하고 평화를 갈구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제인 구달 박사는 “인간은 동물들과의 향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며 “자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나 자신 또한 끊임없이 만해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최동호 명예교수는 “만해의 시를 읽으며 문학을 시작했다. 더 높은 성취를 향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레어 유 상임교문은 “한글과 한국어로 세계를 연결해왔다. 문화와 이념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제12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

대회 제6회 중등부 풋살대회 ‘금강 FC-B’ 우승



▲ 진각종 풋살대회 시상식

진각종 제12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우승컵은 부산교구 ‘부산 FC’에 돌아갔다. 또 제6회 중등부 풋살대회 우승은 대전교구 ‘금강 FC-B’가 차지했다. 올해 자성동이, 중등부 결승전은 승부차기로 승패가 결정이 났다.

8월 2일 중립 위덕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린 자성동이 풋살 결승에서 ‘부산 FC’는 경주교구 ‘처용’을 승부차기 끝에 2대 1로 꺾고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서울 FC-B’, 4위는 ‘경산 FC’에 돌아갔다.

‘부산 FC’를 우승으로 이끈 김성현 학생(6학년·삼학삼인당)은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자성동으로 마지막 출전한 경기에서 부산의 우승 환을 풀어 기쁘다”면서 “내년에는 중등부 풋살대회 다시 선수로 뛰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린 중등부 결승전은 ‘금강 FC-B’가 환상적인 동점 골을 만들어내며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연출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 FC’와 전반전을 2대 2로 마친 ‘대전 FC’는 후반 중반 1실점 하며 패색이 짙어갈 때쯤 경기종료 2초 전 천금 같은 동점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사기가 오른 ‘금강 FC-B’는 승부차기에서 3대 2로 짜릿한 역전승을 맛봤다. 이로써 ‘금강 FC-B’는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최초의 팀이 됐다. 3위는 ‘천안 FC’, 4위는 ‘청도 FC’가 차지했다.

폐막식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최성 정사는 축사를 통해 “2박 3일 동안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의 폐기와 열정, 도전 정신이 종단의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종단에서도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풋살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 정사는 “여러분은 종단과 사회, 국가의 희망”이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서 훌륭한 인재로 자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홍육현 위덕대 총장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함께한다는 공동 협업의 마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더욱 더 큰 가르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연구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예정

조계종은 8월 24일 오후 3시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 내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김종진 문화재청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거행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전통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진단, 보존, 복원,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캐불 전시 공간 등도 마련해 상시로 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공식은 어산어장 인목 스님의 신중작법(식전 불교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홍보 동영상 시청, 문화부장 스님의 경과보고, 총무원장 스님 인사말, 축사, 기공시삽, 봉은사 합창단의 축하, 사홍서원, 홍보부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을 거행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전국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성보에 대한 진단과 보존, 복원, 연구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으로, 특히 국내 유일의 캐불전문 보존처리 기관으로 건립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예경의 대상인 성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를 담당하게 되며, 캐불 전시 공간도 마련해 상시로 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불교문화재보존센터 조감도

보존센터 건립은 조계종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조계종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찰성보는 약 10만 7000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보나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가 1490점, 나머지 98.6%에 달하는 10만 여 점이 비지정문화재이다.

보존센터는 국고지원 140억 원, 종단에 60억 원을 부담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계종 총무원도 문화부 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신도시문화시설건설TF팀을 별도로 마련해 시설건립을 주관하고

있다.

보존센터는 2015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됐으며, 2016년 시설 내구성요소, 소요면적 등에 대한 기초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내 완공해 같은 해 하반기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보존처리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      |     |      |        |        |      |        |        |        |      |        |         |     |      |        |        |
|------|-----|------|--------|--------|------|--------|--------|--------|------|--------|---------|-----|------|--------|--------|
| 개천사  | 이희권 | 7/27 | 10,000 | 안주화    | 7/24 | 10,000 | 수인사    | 정순득    | 8/16 | 10,000 | 지인사     | 허성동 | 8/10 | 30,000 |        |
|      | 전세형 | 8/7  | 30,000 | 원봉     | 8/16 | 10,000 | 실지사    | 황성녀    | 7/26 | 10,000 |         | 승효제 | 8/16 | 10,000 |        |
| 관성사  | 인선  | 7/24 | 20,000 | 지선행    | 8/16 | 10,000 |        | 정경자    | 8/11 | 10,000 | 초록어린이집  |     |      |        |        |
|      | 이승은 | 8/8  | 10,000 | 만보사    | 정덕순  | 7/26   | 10,000 | 유승태    | 8/17 | 10,000 |         | 황화성 | 7/25 | 30,000 |        |
| 기로스승 | 상지화 | 7/24 | 10,000 | 밀인사    | 정정희  | 8/1    | 5,000  | 운천사    | 이성미  | 8/4    | 50,000  | 총지사 | 손경옥  | 8/16   | 10,000 |
|      | 수증원 | 7/24 | 10,000 |        | 법등   | 8/17   | 30,000 |        | 무명씨  | 8/9    | 20,000  |     | 박정희  | 8/18   | 10,000 |
|      | 밀공정 | 7/24 | 10,000 | 백월사    | 진평   | 8/9    | 5,000  | 일원어린이집 |      |        |         |     | 신용도  | 8/18   | 10,000 |
|      | 총지화 | 7/24 | 10,000 | 법황사    | 박미경  | 8/18   | 10,000 |        | 김용미  | 7/25   | 10,000  | 화음사 | 무명씨  | 8/8    | 10,000 |
|      | 법수원 | 7/24 | 10,000 | 벽룡사    | 양정현  | 8/1    | 10,000 |        | 하재희  | 7/25   | 50,000  |     | 강승훈  | 8/10   | 5,000  |
|      | 선도원 | 7/24 | 10,000 |        | 양지현  | 8/1    | 10,000 |        | 구미자  | 7/31   | 10,000  |     | 강승민  | 8/10   | 5,000  |
|      | 법지원 | 7/24 | 10,000 | 권형민    | 8/1  | 10,000 |        | 정각사    | 변순개  | 7/31   | 20,000  |     | 무명씨  | 8/10   | 10,000 |
|      | 일성혜 | 7/24 | 10,000 | 사원명무기명 |      |        |        |        | 김문수  | 8/7    | 10,000  |     | 무명씨  | 8/10   | 10,000 |
|      | 불멸심 | 7/24 | 10,000 |        | 최영미  | 8/10   | 50,000 |        | 안한수  | 8/11   | 10,000  | 흥곡사 | 지정   | 8/16   | 20,000 |
|      | 사홍화 | 7/24 | 10,000 |        | 박필남  | 8/14   | 10,000 | 제석사    | 안용준  | 8/3    | 200,000 |     |      |        |        |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  
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  
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  
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  
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 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대관대인사(大觀大忍師) 49재

총본산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 및 교도 동참



▲ 대관대인사 49재(총지사)

지난 불교총지중 6월 30일 토요일 열반 든 원로 스승 대관대인사(세수 90세, 법남 45년)의 49재가 총지사에서 봉행됐다. 49재는 8월 17일 정오에 총지사 서원당에서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됐다.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100여명이 동참했다.

동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에서 “평생 남에게 빚을 지고 살면 안된다며, 무엇이라도 배풀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며, 수행과 교화를 위해 매진하신 대관대인사님의 49재에 동참해 주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대관대인사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하오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라고 스승님을 추념하고 동참대중에게 인사를 전했다.

1924년(甲子)생인 대관대인사는 1984년 총지중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1987년 4월 함마급 대인수에 품서 됐다. 전주 흥국사에 부임해 전북지역 교화에 전력을 다하시고 1996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총지사=김초량 기자

## 포항 수인사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난항

경비 확보 문제로 올해 개최 어려울 듯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가 개최해 온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가 올해 경비 확보 문제로 난항에 봉착했다.

수인사는 신정회와 신형단체 수인회를 중심으로 사원 소재지인 포항시 중앙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공양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9월에 개최한 포항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경로잔치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배할매 효 잔치”에는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 동의회 부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가 모두 동참하고,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쇄고기 국밥과 떡, 과일들을 공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두 번 개최된 경로잔치의 경비는 수인사 신정회와 수인회 회원들이 모은 회비와 김장 김치 판매 등의 수익금과 총지

중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 7,8백만 원이 드는 경비 확보가 어려워 지역 교회의 새로운 방편으로 큰 효과를 거둔 나눔의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는 “수인사에서 개최해 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큰 호응을 얻고, 지역사회의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개최 할 때 마다 늘어 평균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수인사가 지역사회에 크게 자리 매김을 하였고, 새로운 교회의 방편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정회와 수인회가 모은 경비로 행사 경비를 대부분 충당 하였으나,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행사의 개최마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고 현재의 상황을 말했다.

불교총지중의 동해권 교회의 중심 사



▲ 2016년 수인사 어르신 경로잔치

원인 수인사는 그동안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시행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과 경로잔치를 통해 주관 신행단체인 수인회가 포항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불교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보시를 기본 수행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나눔을 통해 종단 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전 교도들의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무량하기를 서원한다.

취재=김종열 기자

##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 문화캠프 전주 일원에서 개최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한복체험활동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산하 바라밀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부강)는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여름방학 문화캠프를 개최했다.

학생 및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가옥 및 한복 체험 학습과 김제 금산사 전통사찰 문화재 탐방,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한옥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전통주거

문화를 배웠고, 한복을 입고 전주 시내 이곳저곳에서 친구들과 쉼터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김부강 센터장은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정각사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인사를 전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역 유일한 아동센터로 소의계층 아동의 학습과 생활, 진로 등을 지도하는 총지중 산하 복지기관이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부강

## 총지중 중비 장학생 2명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 법상 정사



▲ 김재동 연구원

불교총지중 중비 장학생 2명이 2017학년도 8월 불교학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총지중은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중비 장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화사 주교 법상 정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생사문화학 전공,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법상 정사의 석사학위 논문 ‘불교의 생명윤리에서 본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불치의 병으로 시달리는 환자

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어려움, 의료진들의 연명 치료에 대한 사례와 불교 경전을

통한 생명 윤리관을 검토해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고찰했다.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원효와 하이데거의 윤리관 비교연구’에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인 원효 스님과 독일의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윤리관을 문헌적, 개념적 고찰을 통해 비교분석했다.

불교총지중은 스승과 종무원의 자기 개발과 불교학 연구를 목적으로 창종 초기부터 꾸준히 중비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종단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제174차 관음학사 동해중 이사회 개최

2017년 추경안 등 안건 심의

총지중 산하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 174차 이사회가 8월 18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열렸다.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이사 우인 정사, 법상인 전수, 강경중 이사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추경안, 2018년 교원 선발 건(영어1명, 역사1명) 및 기타 안건을 심의 결의했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이사회에 앞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돌아보고, 우리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장 선생님과 이하 교직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며 개학을 앞둔 학교 일정과 학사 전반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에 강경중 이사는 정각사와 통리원에 연화도 일점씩을 기증하는 행사도 열렸다.

동해중학교=행정실장법선 정사

## 정각사 문화강좌(수시모집)

### ◆ 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단장:이상록

지휘자:박윤규 / 반주자:김옥희

### ◆ 소포초댄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사:소달복

회비:무료

### ◆ 한국화(천 아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안정은

회비:5만원

### ◆ 다도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강사:김정애

회비:무료

## 수인사 문화강좌

9월 13일 ~ 12월 6일(3개월)

### ◆ 명상 호흡 뇌체조

강사:우명숙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 악선식 사찰요리

강사:박금화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 ~ 오후 1시 30분



## 지상 설법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心如工畫師(심여공화사)

보명심 전수

“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활이 바뀝니다.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훈련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

마음공부는 왜 하는가?

인간이 가진 본래의 참마음(본성)을 찾아서 참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원리를 궁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며 인간의 주인이 되며 왕이고 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못하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心如工畫師(심여공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으며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작가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인연된 세상 모든 것은 나의 마음 먹기에 따라 낙(樂)도 고(苦)도 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조법설집에서 자기마음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여의고 밝은 지혜를 얻어 참스승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마음을 스승으로 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하는데 막상 알 것 같으면 서도 모르겠는게 나의 마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누구의 아내, 남편, 엄마, 자식 등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은 뭐지?’ 내 가슴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내보일 수 없는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왜 행복할까? 왜 아플까? 왜 허전할까? 왜 화가나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은 고통의 바다라 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실존이고 정체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짜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실체인 것이지요.

마음은 내 것인 것 같으면서도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통 남의 객체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바깥에 의존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깥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인으로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문화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먹고사는 의식주와 물질풍요에 중점을 두었고 먹고 살만하니 건강이 최고라 하며 웰빙(well-being)이니 자연식 먹거리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물질풍요와 먹거리가 해결되니 다채워진 것 같았는데 왜 마음이 허전하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왜 마음이 만

족하지 못하지?

마음이 원만하지 못해서 마음의 평화와 본성을 찾아서 해매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본능으로 바깥 모습의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모습·외모·돈· 명예 등등이 있습니다.

또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기쁨·슬픔·두려움·쾌감 등이죠.

즉 오감에 의해 즐겁고 행복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며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오감은 에고(ego)를 만들어 냅니다. 에고는 자아·집착·아집·고집·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정망상으로 맞다-틀리다, 높다-낮다, 달다-쓰다, 좋다-나쁘다, 등등 오감에 미혹되고 유혹을 당하면 대상에 지배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훈련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정제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물이나 대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려운 일, 번뇌스러운 상황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물흐르듯 잘 흘러갈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 앉쳐서 조용히 눈을 감

고 대상인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나의 어린시절 등 살아온 날들을 사랑으로 연결된 대상에게 순수한 참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종조님께서는 법설을 통해 “안을 닫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함은 원래 그릇된 것이라 복이 안에 솟아남을 미처 알지 못하고서 동쪽이나 서쪽에서 옴과 같이 생각하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어떤 시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내 안의 나를 알아차림하고 있습니까?

순수 욕망으로 에고(ego)를 느끼는 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인 에고(ego)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잘 살펴보면 여태껏 보지 못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상대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 역시 어떤 잣대로 나를 말 할 수 있는지?

결국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성찰과 알아차림일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 할 수 있는 사람과 자각과 반성 사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연된 편안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시어 마음해탈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칼럼 지혜의 눈

영원한 현역,  
아름다운 회향의 삶“나는 삶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자리이타적 삶, 은퇴 후로 미룰 것 아냐”

어느 모임에 갔더니 각자가 가슴에 담고 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솔직하게 터져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다. 누구나 곧 직면할 문제여서 그런지 관심이 쏠렸다. 대체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고 할 분들인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솔직히 고백하는 듯 보였다.

보통은 조그만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면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부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부와 봉사로 회향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담론은 과연 나누는 삶만으로 충분화가 하는 문제제기였던 것 같다. 기부나 봉사를 통한 기쁨도 그 뿐 아니라, 결국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등등.

중국에 선불교를 전해 중국선불교의 초조로 불리는 달마대사의 일화를 돌아보자. 달마대사는 수많은 사찰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한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는 양무제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하는 물음에는 ‘모른다’ 하고 뒤돌아서 떠나갔다. 내심 큰 자랑을 하고 싶었을 양 무제의 당황하는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하다.

달마대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우선은 물질적인 복덕보다는 정신적인 공덕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암만 많이 베풀어도 그 양에 한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쉬운 비유가 될 성싶다.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사구게 하나 전하는 것만 못하다’며 법보시를 강조하는 금강경 말씀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또 ‘이만큼 했다’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공덕을 지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는 유마경의 말씀처럼, ‘머뭇없이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처럼 성심껏 꾸준히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는 일보다 긴요한 일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떤 일이든 출발점이 되는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갖춰야만 멋지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 하는 일마다 불사가 되고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보통 우리에게 본래면목을 찾으라고 고구정녕하게 주문하는 것 아닐까.

나누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아(無我)의 자리이타(自利利他)적 삶을 꼭 은퇴 후로 미룰 필요는 없다. 평소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행정진하며 인연 닿는 대로 주위에 도움이 되다보면 은퇴 후까지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아름다운 회향(廻向)의 삶이야말로 현역과 은퇴가 나뉘지 않는 ‘영원한 현역’이 아닐까 싶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인류의 스승들은 영원한 현역으로 사셨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진리의 눈을 뜨시고는 평생을 전법의 길에 나서 열반 직전까지도 마지막 제자를 막지 말라 하시며 진리의 눈을 뜨도록 하셨다.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현역이란 이런 것이라고 몸소 보여 주신 것 같아 가슴 뭉클해진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육자의궤 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증밀교,  
수행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6

대승 보살사상의 핵심은 이타에 있으며 관음은 자비의 대표 보살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핵심 신앙으로 관음신앙이 있는 것이다.

관음신앙은 다른 보살신앙과 마찬가지로 중생에게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특히 관음신앙은 주로 현세적 고통을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되어오고 있다. 현재의 삶의 문제에 급급한 인간에게 있어서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 고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음신앙의 소의경전으로 널리 신봉되고 있고 관음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가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관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일심칭명의 공덕으로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관세음이라 불리는 인연을 묻는 무건의보살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대는 들을 지나라 관음의 덕행은 어느곳 할것없이 다응 하느니라.

그서원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나니 한량없이 아득한 집 지내오면서 천역의 땅은 부처님을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그대 위해 간략히 설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을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도다.

관음보살이 지닌 중생구제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 겁전부터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안내로 53선지식을 진견하면서 보살행과 보살도를 묻는 중에 수괴사리쌍의 안주장자로부터 남천중국의 보타락가산에 관세음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고 28번째로 보타락가산에서 상주설법하는 관음을 찾는다. 여기서 관음은 일체 중생이 18종의 공포를 벗어나도록 하는 서원을 세워 대비법문광명행을 성취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들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락하게 하고 복을 주는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보살이다.

다음의 관음신앙의 특징으로 관음보살

# 대승장엄보왕경

## 『관음신앙의 특징』

의 다양한 응신을 들 수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대비심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고 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신통력을 갖추고 널리 지혜 방편을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여 관세음보살은 신통력과 자비를 갖추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방삼계에 보문시현의 신통력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응신하여 설법하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였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나타나는 관음의 다양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떠한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즉시에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즉시에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즉시에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중

략) 집금강신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즉시에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이 33가지나 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손쉽게 다가가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다양한 응신으로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은 『수능엄경』에서는 32응신으로 나타나며,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20신으로 응신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음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보문시현하여 여러 가지로 몸을 나타내는 다양한 응신으로 구구 구난하여 해탈케 하는 모습은 일체 중생에 대한 평등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떠한 모습으로도다 중생 앞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제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관음보살의 대비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음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문시현하여 중생들의 고난과 액난을 해탈케 하여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적극적인 모습이 관음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음보살이 가장 널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신앙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외원종단 탐방

# 법화원융의 길을 밝히는 대한불교 법화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벽발산에는 신라 천년 고찰 안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본산이자 종찰인 안정사는 종단의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중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무원장 도성 스님

보존 중인 문화재와 비교 조사를 통해 안정사 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안정사 성보문화재가 돌아온 다음 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경내에 있는 석조

대한불교법화종의 종조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스님이다. 대종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운동을 통하여 민족회합을 이룩하고 인류의 영원한 불국토 구현을 이상으로 하며 소의경전은 『묘법연화경』이다. 법화종의 창종주는 정각(正覺, 金甲烈 1904~1982)스님이고, 현재 종정은 도정 대종사이며, 총무원장은 도성 스님이다.

1969년에 불교단체로 등록하였고, 전통사찰보존법 이후 1991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변경했다. 1999년에는 원용학림을 창립하여 법화경 일승도 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실행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총무원은 서울특별시 삼선동에 있다. 주요 행사로는 일반 불교명절 외에 창종기념일(음력 5.10), 창종중정제일(음력 8.17), 대각국사제일(음력 10.5) 등이 있다. 1983년부터는 「법화종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국에 1,500여 사찰을 두고 있다.

## 돌아온 성보 문화재

8월 23일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은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에서 안정사 은 문화재 1,166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경상남도 경찰청 문화재 사범 단속에서 찾아낸 안정사 도난 성보문화재가 이번에 돌아옴으로 안정사는 법화종의 종찰로서 그 위상을 되찾았다.

이번에 되돌려 받은 성보문화재에는 고려시대 ‘혜위등광불좌상’ 및 복장 일괄 유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금송패(禁松牌)’, ‘안정사건물귀중품대장’, ‘안정사주지전장기’, ‘묘법연화경소’ 등이 다. 특히 ‘안정사건물귀중품대장’은 현재



## 그때 그시절

|                  |                   |
|------------------|-------------------|
| 총기원년(1972) 9월9일  | 총기원년(1972) 9월29일  |
| 비밀의계를 인쇄배포       | 왕생막(往生幕)과         |
| 밀교심요(密敎心要)의      | 법등(法燈)을 고안제작      |
|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발체하여 | 교도가정의 제례(祭禮) 때 쓸  |
| 한글로 번역 배포        | 왕생막과 법등을 고안 제작    |
| 총기원년(1972) 9월29일 | 총기9년(1980) 9월8일   |
| 육합상(六合相)을 고안제작   | 종조입적 및            |
| 총지종 교의(敎義)의 상징이자 | 초종준비(初終準備)        |
| 총지(宗旨)를 표시하는     | 종단장으로 진행, 법제는     |
| 육합상 고안 제작        | 다비하여 사리(舍利) 다수 수습 |



도현정사  
중국불교옛보기 ④

# 노자화호설(老子化胡說)

## 노자가 오랑캐 땅인 인도에 건너가 석가모니로 다시 태어나 오랑캐들을 가르치다

한자(漢字) 문화권(文化圈)에서 유교(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는 오랜 시간동안 서로를 견제하거나 서로를 수용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왔다. 그중 불교와 도교는 종교로서 오늘날까지 이어 왔지만 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다. 유교의 교(敎)는 종교가 아닌 교육이라는 뜻이 강하다.

도덕적 가르침이며, 정치적 가르침이 자윤리적 규범인 것이다. 원래 유교는 윤리적 철학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가르침이다. 다만 후대의 불교적 영향을 받아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 종교 운운하면 결국 불교와 도교를 말하는 셈이다.

처음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는 이미 토착종교로서 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인 불교는 중국인들에게 이질적이고 매우

낯선 모습이었을 것이다. 굳이 비교한다면 요즘 우리가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낯설음과 이질감과 같은 정도가 아닐까 추정해본다. 그러나 불교는 거대한 대륙, 수많은 인구, 장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에 기존 사상들을 제치고 점점 토착화 되었다.

중국의 토속 종교인 도교는 노자를 교조로 삼고 있으나 종교적인 측면은 중국 고대의 잡다한 민속신앙을 집대성하고 여기에 노자의 철학사상을 더하여 체계화 한 현세적인 종교다. 또한 신선사상, 음양사상, 불로장생법, 연단술 등의 세속적인 신앙까지 흡수하여 저변 세력을 확보했다.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당나라는 선비족 계열의 귀족 이연(李淵)이 세우고 지배한 왕조였기에 노자의 성씨(姓氏)가 당황실과 같은 이(李)씨(이름은 이(耳), 자(字)는 담(聃))임을 이용하여 도교를 정

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도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곧 불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이때 도교가 불교에 대하여 교리적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 노자화호설(老子化胡說)을 내어 놓는다. 노자가 오랑캐 땅인 서쪽 인도에 건너가 석가모니로 환생하여 오랑캐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설이다. 실명을 조금 더 붙이면 도교가 오리지날 원조이고 불교는 도교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불교도 삼성화현설(三聖化現說)을 주장하는데 이는 불타가 중국으로 세 명의 제자, 즉 유동보살, 광정보살, 마하가섭을 보내 각각 공자, 안희, 노자로 태어나게 하여 유교와 도교를 중국에 가르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교와 불교가 서로 견제의 대상만 된 것은 아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도교의 용어를 빌려와 그 개념을

근거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이른바 격의불교(格義佛敎)는 불교가 중국 전역에 전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격의에서 ‘의(義)’는 ‘말의 뜻’을, ‘격(格)은 ‘의배(擬配)’ ‘추량(推量=재대, 헤아리다)’으로 ‘비슷하게 짝짓다, 빗대다’·‘비슷한 말-개념(유사어)에 기대/빗대/비겨서 번역하다’는 것이다. 일단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말과 개념을 헤아려 무엇이든 중국식으로 대치, 변용하는 중국인들의 오래된 전통적 방법론이 격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교도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남북조시대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걸쳐 성립한 도교경전들에는 불교사상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교의 ‘보요경’에서 고유명사만 바꾸어 불타의 출생을 그대로 본떠 노자의 출생을 묘사한 ‘유훈전’이라는 도교의 경전을 들 수 있다.

## 유물로 보는 밀교



▲ 남해용문사 청동반자

원형 형태의 청동반자는 뒷면에 10cm 폭 가량의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가운데가 뚫려있어 마치 징과 같은 모양이다. 반자 표면은 3조의 돌기대로 구획되어 있는데, 내구는 타격하는 부분이라 많이 마모된 상태이다. 전면 가장자리에 약 10cm의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8호  
남해용문사청동반자(南海龍門寺靑銅飯子)  
시 대 : 고려 (추정)

보수흔이 있으며, 측면에는 파손된 구멍 자국이 보인다. 반자 앞면은 3조의 돌기대를 동심원으로 둘러 내구·중구·외구로 구획되어 있다. 3조의 돌기대는 표면에서 융기되어 뚜렷하게 도드라져 있다. 내구와 중구는 문양이 없으나, 외구는 직경 7.4cm 크기의 범자추임연변원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5군데 시문되어 있다. 반자 측면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3조의 돌기대를 둘렀고, 3개의 반원형의 귀(고리쪽)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는데, 고리는 따로 주조하여 붙였다. 이면은 6개의 동심원으로 음각되었고 그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39. 정상화불수(頂上化佛手) 진언



## 옴 바아라니 바아람에 사바하

시방 모든 부처님이 속히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며 수기해 주시기를 바라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김기자의  
사/원/탐/방

# 개천사 대구 교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는 대가



▲ 사진 : 좌측-대구 개천사 전경 / 우상-동참불공 / 우하-염송 정진으로 즉신 성불의 대도를 이루려는 교도



## 진언 염송 정진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다

자라바위의 영험한터에 자리 잡은 개천사

가장 깊은 불심을 자랑하는 달구벌

총지종 대구경북 교구의 중심 사찰인 개천사(開天寺)는 그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다. ‘하늘이 열리는 절’ 즉 진리의 하늘 문을 활짝 연다는 뜻이다.

개천사가 위치한 동네의 이름은 봉산동이다.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와 가까우며, 조선시대 지방 교육 기관이었던 대구 향교가 자리 잡은 동네다. 봉산동의 지명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자라바위에서 치성을 드린 후 용꿈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아룻장승배기, 옷장승배기 등의 자연마을과 개천사가 위치한 야산인 자래방우 산이 있다.

개천사 근처에 위치한 대구향교는 조선시대 지방 국립 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과 학생을 교육하는 강학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처음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 선조 32년(1599)에 달성공원 근처에 다시 세웠다가 선조 38년(1605) 교동으로 옮겼고, 1932년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세운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문묘·삼문 등이 있다.

명물거리로는 봉산문화거리가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199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화랑 20여 개가 있으며 거의 연중무휴로 작품전이 열리고 10월에는 봉산미술제가 열린다. 예술마당 술은 서울의 인사동이나 대학로 거리 못지않은 많은 공연이 펼쳐진다.



▲ 불교총지종 개천사 약도

## 불교총지종 대구 교화의 중심 ‘개천사’

국권을 지키려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廣文社)의 명칭을 대동광문회(大同廣文會)라 개칭한 특별회에서 회원인 서상돈(徐相敦)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애국계몽단체와 언론기관이 모금 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모금을 하기 위해 금연 운동이 전개되었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까지 내놓았다.

주권수호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전통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다시 그 빛을 발했다.

진리의 하늘 문이 열리는 영험 도량 개천사

자존심 강한 대구 사람들의 정통밀교 수행 도량인 개천사는 창종 초기부터 진언 수행을 통해 수 억겁을 쌓아온 업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교도들로 넘쳐났다.

1972년 12월 24일 역사적인 총지종의 입교개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원정 대성사는 바로 대구선교부 창설을 준비했다. 대구는 원정 대성사에서 총인으로서 몸 담았던 진각종에서 대성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



▲ 통일음악회 참여한 금강합창단

아오는 교도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 중의 하나였다. 대구선교부는 1973년 3월 19일 대구시 봉산동 230-12번지에 문을 열고 초대 주교로 총지종 제2대 총령이신 환당 대종사가 초대 주교로 취임 했다. 2년 뒤인 1975년 원음 사원당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76년 3월 19일 원정 대성사에서는 진리의 하늘 문을 활짝 연다는 뜻의 개천사라는 사원명을 내리시고 불단이 설 불사를 봉행했다. 지금의 개천사 건물은 1990년 2월 16일 착공하여 다음해인 1991년 3월 28일 완공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계궁을 활짝 열었다.

대구·경북 교구의 신행 중심 사찰 개천사

개천사는 전신인 대구선교부와 원음서원당의 전통을 이어 받아 대구·경북 교구의 중심 사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천사하면 천상의 화음으로 범음을 전하는 금강합창단(지휘 배해근, 단장 김계숙)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총지종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통일음악예술제를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 사원에서 초청 공연을 할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나다.



▲ 개천사 교도들

신정회(회장 김옥희)는 사원 신행의 중심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색진 불사를 비롯한 개천사의 대소사를 하나 하나 챙기는 신정회의 단결력은 총지종 전국 사원 중 으뜸이다.

연례행사로 삼사순례, 지역 명승지 관불, 교도 가정 경조사 동참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개천사 교도들은 전생의 업을 빚으로 생각하고 사람 몸 받고 태어난 지금 진언염송을 통해 업장을 다 소멸하고 진리의 하늘 문이 열려 즉신성불을 이루는 그 날까지 용맹정진하고 있다.

주교: 우인정사

전화:053-425-7910

주소:대구시 중구 명륜로 23길 38-10

금강합창단

지휘:배해근

단장:김계숙



개천사 장경순 보살 이야기

# 인생의 고해와 전생의 업을 진언 염송으로 이겨내다

## 포기할 수 없는

## 포교활동과 신앙생활

제가 젊었을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판매 일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나누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총지종을 소개해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총지종을 만나게 해주고 또 총지종의 힘을 알려주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다 같은가요?

절에 길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3년이나 다니면 길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죄다 짧게 나오는 시늉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찌나 야속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서원당에 같이 오는 날이면, 들뜨고 행복한 마음으로 제 주머니의 돈을 털어 염주도 사주고 경전도 읽어주고 했지만 죄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도 많이 데려온다고 정사님으로부터 상장 비슷한 것을 받기까지 했는데 중국에는 스스로가 민망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이제 포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집안의 어르신 중 하나가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종종 그곳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정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엔가는 총지종 사람들 다 같이 그 분을 위해 불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다른 어른들은 총지종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 간다고 하자 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요양원에 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개 중 저희 총지종의 말과 행동을 흡족하게 본 어르신께서 자기네 식구 조상의 제사를 총지종에서 지내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그 후 그 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총지종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바로 여기 개천사의 회장 보살님이십니다.

그간 술한 사람들과 함께 총지종을 다니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낙담도 하였지만 현재의 저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을 총지종에 입교하게끔 만들어 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몹시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그럼에도 저 스스로 행한 성공 중 가장 큰 성공은 회장 보살님을 총지종에 입교시킨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9일 불공으로

## 불공의 힘을 알게되다

저는 박보살을 총지종에 입교시킨 일등공신입니다. 당시 박보살은 저희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가정이 파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으러 가면 하도 울어서 통통 부은 눈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을 눈물과 스트레스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인지 결혼을 한 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어쩌다 임신이 되어도 번번이 유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보살의 손을 잡고, 무조건 개천사에 가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개천사로 가게 되었고, 개천사에 간 첫날 전수님 역시 박보살의 손을 잡으며 두 말 하지 말고, 사십구재부터 지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박보살이 끌어안고 있던 두꺼운 업은 단박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불공을 끝내기도 전에 임신이 된 것입니다. 원체 체력이 약했던 박보살을 염려하여, 병원에서는 외출도 자제하라고 하였지만, 박보살은 아랑곳 않고 버스를 타고 절과 집을 왕복했습니다.

임신 때마다 지독했던 입덧도 없었고 달수를 모두 채우고 건강한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그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사 합격이 확정되자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외모도 웅장하고 예의도 바르게 자라난 아들은 제 엄마가 어떻게 총지종을 믿고 자신을 얻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터라 일요일이면 늘 절에 다녀왔다는 인부 전화를 제 엄마에게 한다고 합니다.

저로 인해 총지종에 입교하고 또 입교를 시작으로 행복을 만난 박보살을 보고 있으면 새삼 불공의 힘을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박보살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개천사 박순조 보살 이야기

#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으로 소중한 아들을 지키다

저는 계유생 박순조, 불명은 대원화입니다. 저희 친정 모친이 절에 다녀서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모친을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쁜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을 하나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저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저는 심장이 무척 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태몽이나, 느낌이 너무나 아들 같았기 때문에 절대로 유산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려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품고 낳았습니다. 역시나 바라고

고대하던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했던 제 심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인지 아들은 잘 때에도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아들 곁을 지키며 호흡이 곤란해질 때마다 간이로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호흡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누르며 전보다 더 열심히 절에 갔습니다.

어느 날, 불공을 마치고 나자 낮잠을 자던 아이가 또 숨쉬기를 힘들어하기에 하던 대로 숨을 불어넣어 주는데 아이의 코에서 코피가 상당량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호흡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밤마다 숨이 막혀서 숙면도 못

취하던 애가 새근거리며 깊은 잠을 잘도 잤습니다. 아들이 잠을 잘 자게 되자 나오지 않던 모유도 잘 나오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니 전보다 청일대는 것도 줄어들고 돌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심장이 마비가 될 것만 같던 증상이 사라지고 여느 평범한 사람처럼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고, 또 아들을 낳은 후로 마음을 다해 절을 다니면서 저는 저 자신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들의 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종교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의 아들과 나의 총지종은, 제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개천사 석옥희 보살 이야기

# 평생을 따라다니던 병마의 고통을 벗게 해준 진언 염송

저는 87세 석옥희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골다공증이 심하고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 절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앓는 것을 가만 보던 딸아이가 여러 절을 돌아가면서 다니지 말고 어느 절에 갔을 때가 가장 몸이 편안한지를 따져보고 그 절만 집중해서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달력에 하나씩 표시를 해가면서 그 날 갔던 절과 다녀왔을 때의 허리 통증 정도, 몸의 상태에 대해 꼼꼼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개천사를 다녀왔을 때가 가장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밥맛도 좋았으며 잠도 잘 들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개천사만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불교만을 따르기도 했지만 불교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제게 맞는 절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 개천사 법회 안내

■ 매주 일요일 10시 자성불공

■ 중조멸도절 법회  
9월 8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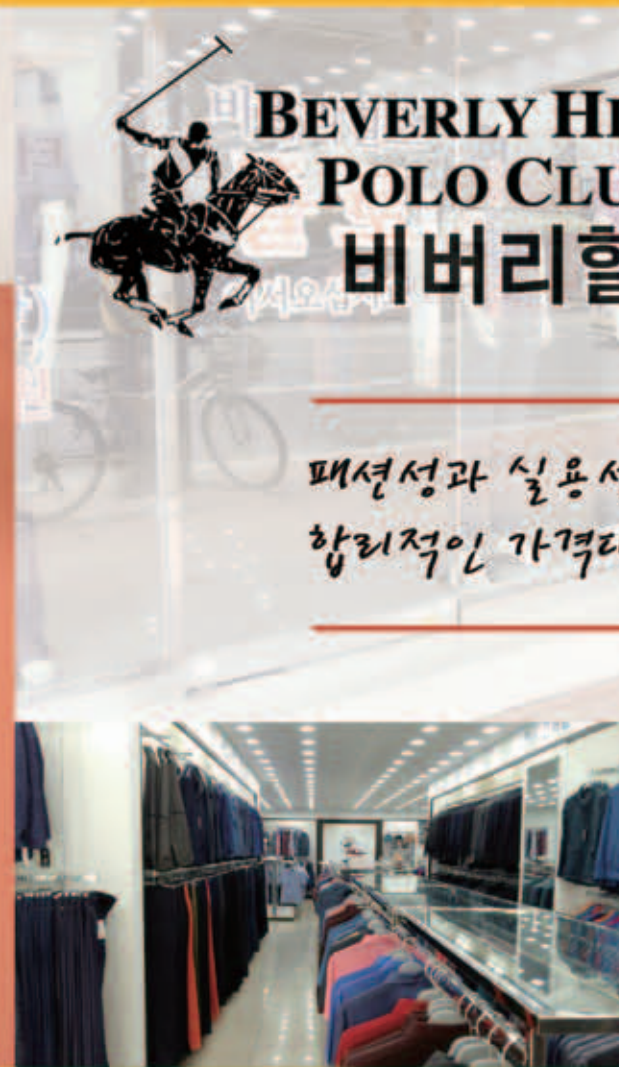
■ 10월 월초불공  
9월 25 ~ 10월 1일 오전 10시

대구시 중구 명륜로 23길 38-10  
053-425-7910



**BEVERLY HILLS POLO CLUB®**  
**경산점 비버리힐스 폴로클럽**

패션성과 실용성을 접목시킨 합리적인 가격대의 쇼핑감각



대표 박중수(개천사 교도)  
010 - 9360-4938

경북 경산시 경안로 197  
(경산터미널 맞은편)  
053-818-4938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7)

## 계(戒)와 밀교수행 (2)

십중금은 열 가지의 무거운 죄다

열 가지의 죄는 경전마다  
명칭과 내용이 각기 다르다

지난 호에서 사중금(四重禁)에 대해 알아 보았다. 사중금은 사(殺), 도(盜), 음(淫), 망(妄)의 네 가지를 말한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는 사중금을 설하고 있다. 첫째는 정법을 버리지 않는 것, 둘째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 셋째는 일체법을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는 것, 넷째는 중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밀교에서 네 가지의 무거운 죄다.

여기에 여섯 가지를 더하여 밀교에서는 십중금(十重禁)을 내세우고 있다. 열 가지의 무거운 죄다. 이 십중금은 기존의 십선계와 다르다.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의미와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십심계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지만, 십증금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일체중생을 위하여 이타행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말하자면 서울로 가는 데 기차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의 차이다.

이 십증금은 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도 나오고, 『법마경』 『보살영락본업경』에도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화엄경』의 십증금은 십증계라 하여 밀교의 십증금과 비슷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비해 『법마경』 『보살영락본업경』에 나오는 십증금은 밀교와 『화엄경』의 십증금과는 내용이 다르다. 『법마경』 『보살영락본업경』에 나오는 십증금은 십심계의 살(殺), 도(盜), 음(淫), 망(妄)이 포함되어 있는 십증금이다. 먼저 십심계를 살펴보고, 『법마경』 『보살영락본업경』에 나오는 십증금, 『화엄경』에 나오는 십증계, 밀교의 십증금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십중금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계율로서 기존의 십선계와는 내용이 다르다

십선계는 ①살생하지 말라 ②훔치지 말라 ③  
사음하지 말라 ④거짓말하지 말라 ⑤꾸미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⑥악한 말을 하지 말라

다 ⑦이간양철하지 말라 ⑧탐욕을 부리지 말라 ⑨성내지 말라 ⑩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라는 열 가지의 십선이다.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에 이르기까지 공통되는 계이다. 그러나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십선업을 계로 인식하지 않고 업설에 입각하여 과보의 의미로서 인식하였다. 그러나 대승에 와서 는 십선업을 계로 인식하고 계바라밀로서 십선을 대승계로, 이를 십선계라 하였다. 대승의 십 선을 대승바살계라 하는 이유이자 그러기이다.

「범망경」과 「보살영라본업경」에 나오는 십중금은 ①~④가 앞의 십선계와 동일하고, ⑤ 술을 사거나 팔지 말라 ⑥재가·출가의 보살 및 비구·비구니의 죄과를 들추어 말하지 말라 ⑦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 ⑧배우는 데 인색하지 말라 ⑨화내지 말고 타인의 사죄를 받아들여라 ⑩벌·법·승의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열 가지의 십중금이다. 이 밖에도 경전과 문헌, 종파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열 가지 계가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십종계는 ①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②이승(二乘)의 지위를 멀리 여의다 ③일체중생을 관찰하여 이롭게 한다 ④일체중생을 불법에 머물게 한다 ⑤모든 보살이 배우는 것을 닦는다 ⑥모든 법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⑦온갖 착한 뿌리로 보리에 회향한다 ⑧모든 여러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⑨모든 법을 생각하여 집착을 여의다 ⑩모든 근의 계율과 의식의 계를 지닌다는 열 가지의 십종계다. 기존의 열 가지 계와 내용도,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십선계, 십종계와 다르게,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밀교의 십종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밀교의 십중금은 보리심을 계체로 하고 있다

밀교의 십중금은 『대일경』이나 『금강경』에는 보이지 않고, 선무의 삼장이 강설하고 일행 신사가 필록(筆錄)하여 편찬한 『대일경소』와 역시 선무의 삼장이 담론 중에 해경 신사가 이를 받아 적어 편찬한 『무의삼장선요』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대일경소』와 『무의삼장선요』의 십중금이 내용과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다. 선무의 삼장이 장론과 담론에서 각기 설한 것으로, 설한 자가 동일인임에

도 불구하고 이들 양자간에 십중금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대일경』의 십증금은 ①~④가 앞의 사증금과 같고 ⑤모든 삼승의 경전과 법을 비방하지 않는다 ⑥모든 법에 대해 인식해서는 안 된다 ⑦삿된 견해를 갖지 않는다 ⑧대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앞에서 그 보리심을 권하여 일어나게 하고 물려나 쉬게 하지 않는다 ⑨소승인 앞에서 그의 근기를 관찰하지 않고 그를 위해 대승법을 설하거나 혹은 대승의 근기를 지닌 자의 앞에서 그의 근기를 관찰하지 않고 소승법을 설하지 않는다 ⑩보살이 언제나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열 가지의 십증금이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열 가지의 계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르다. 핵심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버리는 것은 모든 목적과 같이 불성(佛性)을 끊는 것이라고 『대일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밀교의 계를 보리심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리심을 계체(戒體)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무의심장선요』의 심중금은 『대일경소』와는 내용과 순서가 조금 다르다. ①보리심을 퇴실하지 않는다 ②삼보를 버리고 외도에 귀의하지 않는다 ③삼보와 삼승의 교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④깊고 깊은 대승경전에서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혹을 내지 말라 ⑤이미 보리심을 발한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보리심에서 퇴전하여 이승(二乘)에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⑥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이승(二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⑦소승과 사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 심묘한 대승법을 경술하지 말하지 않아야 한다 ⑧사된 견해를 버릴 말아야 한다 ⑨외도의 앞에서 무상보리의 묘계(妙契)를 갖추었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⑩일체중생에게 소중하게 되고 이익이 없는 일은 짓지도 말고 사람을 시켜서 짓게 하지도 말며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열가지의 심중금이다.

총지종의 스승과 교도들이 받는 십중금은 『무외삼장선요』에 따른 것이다. 선무와 삼장은 십중금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하게 수지해야 한다. 어긋나지 말고 이를 범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서 십중금과 기타 밀교의 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르노삼성 SM6

자동차 전문가가 뽑은 '2017 올해의 차' 수상

**SM6, '올해의 안전한 차' 최고점 획득**

지금 시승 신청하세요

SM3 SM5 SM6 SM7 QM3 QM6



**김지미 팀장(실보사 코드) 010-4812-1258**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94 TEL. 054-283-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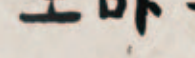


권오길 제면소와 함께하는 축석에서 끓여먹는

# 도마손국수



도마손국수











**MENU**

칼 국수 냉모밀 도마보름  
냉국수 반모밀 왕만두  
냉국수 비빔모밀 감자물만두  
비빔국수 동치미모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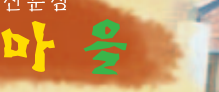
예약문의 ☎ 031-493-2249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132

개천사리도

# 버섯요리 전문점

## 버섯마을





버섯쌈밥  
버섯국  
버섯찌개  
버섯전골  
버섯냉면

버섯불고기  
버섯전골  
버섯전골  
버섯냉면

☎ 053422-9965

대구시 중구 형인동 37-3 398-2

※ 지터, 냉면, 떡볶이 등 추가



**COMPOSE COFFEE**




변화하는 카페 문화의 방향성을 지휘하다

**업모먼트 COMPOSE COFFEE**

**부산 가야점**

신선한 맛 (Taste)  
 부담없는 가격 (Cost)  
 기존 사이즈 2배의 양 (Amount)

대표 김우영 (차바리스타) 010. 2441. 1252

부산시 부산진구 대학로 13

##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 규격화 생산된 탄력/시공 전문 기업
- ◆ 직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용도형 건물의 확장성 칸막이 전문업체

## 『신양큐비스』





모든 내부 칸막이 전문업

대표 김 할 옥 (법정명 남양주 코도)

연락처 010-8853-2304

경기도 특성상 수도권 영업과 735-2

Tel. (031)355-6987-2



## 대동농원 최첨단 아로니아 가공 공장 준공

위생적인 가공을 통해 불자남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대동농원**  
연락처 010-3537-3090

● 불교홍지름 단음사 신도: 경점학 격자



## 동해중 소식

## 강경중 전 교장선생님, 동해사 서원당에 불화 기증



▲ 동해사 불화 기증식

강경중(전 동해중 교장)님께서 2017년 8월 1일 동해사에 귀한 불화 한 점을 기증하셨다.

이 불화는 원래 강경중(전 동해중 교장)께서 자택에 모셔 두셨던 것인데 이 소중한 불화존상을 더 이상 가정에 보관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소중한 이 불교 유산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옳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증처를 고민하고 계시던 중에 동해중학교 현 학교장에게 의견을 물어 오셔서 의견을 나누던 중 현 학교장이 정중하

게 말씀을 드려 우리 동해중학교 내 동해사 서원당에 모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쾌히 승낙하셔서 모시게 된 것이다. 이 불화의 소장 경위는 약 35년 전 티베트의 한 구도승께서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습득하여 지니고 있으신 소중한 불화였는데 이 구도승께서 불심 깊은 강경중 전교장 선생님과 인연이 되면서 강경중 전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의 사비를 털어 구입하여 지금까지 모셔오시던 것이었다.

이 불화의 특징은 사방과 위 중앙에 총 5위의 보살이 공양을 하고 있으며 중앙의 본존상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정면을 향하고 있는 본존상 얼굴 이외에 3개의 얼굴 모양을 더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는 제 3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을 지니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의 단순한 외적 관찰만으로도 이 불화는 색체가 아주 수려하고 그림의 화법도 아주 섬세하며 필법도 매우 정교하여 불화 중에서도 가히 걸작이라 할 만한 소중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별히 이 불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불화가 밀교적 색체가 너무나 강한 작품이란 것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소중한 불화를 기꺼이 동해사에 기증해 주신 강경중 전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린다.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 강제징용자 유해봉환은 진정한 ‘영혼불사’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최근 일제하 강제징용을 다룬 <군함도> 영화 한 편이 광복 72주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아픈 과거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미 2012년에 대법원이 강제동원은 타 국민에 대한 감금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간 과거사는 강제징용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임에도 이를 부정해 왔다. 실제로 군함도 영화서 나오는 실존 인물인 교정의 김 용은 4년간 하시마 탄광서 일한 경험담을 통해 19살때 동네서 모집돼 규슈의 한 탄광에 갔다가 6개월 만에 하시마 탄광으로 가게 됐으면서 하시마는 나는 새도 못 나온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일본이 강제 연행을 조직적으로 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이 총동원체제를 내려 하시마 등서 전쟁준비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탄광과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유린당하고, 심지어 원자폭탄 피해까지 입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 한참게 이역만리서 고통받다 돌아가신것도 억울할텐데 설상가상으로 그 유해 또한 고국으로 못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가 일본서 국내로 봉환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제

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는 8월 6일 일본 도쿄 히가시무라야마시 소재 제일동토 사찰 국평사에서 일제강점기 노동동원자들의 유해 33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위원회는 북한 출신이자 국평사 주지인 윤벽암 스님이 제일동토 무연고자들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일본을 방문, 국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 실무진들이 의사를 타진한 뒤 7월 초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이 윤벽암 스님을 만나 최종적으로 봉환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된 유해 101구 중 33구를 1차로 봉환했다. 유해는 8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시립공원묘지에 안치됐다.

이번 선조들 유해 봉환에는 불교계 스님들의 공로가 컸다. 현재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과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일산 삼학 법보사 주지), 감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무원 스님은 4년 넘도록 위원장을 맡아 유해 봉환에 앞장섰고, 최근 합류한 신광 스님은 실무를 맡아 의식을 집전하고 언론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유해는 약 50만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중 무연고 유해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역사의 아픔을 풀어간다는 취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 일은 남북한 공동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에서 남북통일 염원파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에 대한 정관계 인식이 높진 않지만 희생자 추모 사업은 불교계 곳곳에서 진행된다.

한국불교중앙협의회(회장 자승)는 지난해 1월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추모비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영령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2015년 일본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외교부 관계자가 추모행사를 종단협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역시 지난 2월 같은 곳에서 위령제를 봉행해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 징용자 유골 봉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무원)도 2015년 러시아 사할린서 강제이주 희생자 합동 추모비 제막식과 위령제를 봉행하고, 추모관을 기공했다.

사할린에는 2005년 전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방문해 위령제에 힘을 보태

기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 봉환만큼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봉환위원회 대표들의 출자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기부금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1차로 유해 33구만 봉환해온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한다.

불교계가 이처럼 이역만리 타국서 외로움과 노역에 지쳐 쓰러져간 선조들을 위로하는 것은 타종교계서 볼 수 없는 불교만의 전통 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원 스님은 ‘영혼불사’라고 칭하며 불교계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유해 봉환을 정부가 맡을 시 일본과의 대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내 사찰에 보관 중인 유해가 많아 불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불교계에 던져진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다.

광복으로부터 어느덧 72년이 흘렀다. 연고조차 없는 선조들의 한을 풀기 위해 불교계가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선다면 더욱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다.

##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 ▷ 화장품, 먹는 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 리콜포털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 ▷ 온라인 쇼핑물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

최근 정부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콜 제도의 용어와 표준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제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도 빠짐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 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환경부(먹는 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물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7년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과 함량기준 신설
- ▷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

■ 스프레이형 제품 내 살생물물질 안전기준 마련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 현직 공예강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바로 그 과목

## ...토 탈공예 지도사란

토탈공예는 한가지 공예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리본아트, 냅킨아트, 클레이아트, 아동미술 등의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 종합공예를 말합니다.

토탈공예지도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공예 프로그램들을 종합하여 진행하며, 다양한 공예활동을 통하여 조형활동, 채색활동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종합 공예 프로그램 전문가를 지칭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 교사를 구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에서 전체학교(초, 중, 고)의 99%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만큼 방과후 교사를 모집하는 학교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났습니다.

## ...토 탈공예 자격증 활용처는



- ◆ 전국 초, 중, 고 방과후 학교 토탈공예 강사
- ◆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강사
- ◆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지역 강사

- ◆ 프리랜서 강사 및 공방 창업 및 사업
- ◆ 놀이방,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강사
- ◆ 홈스쿨 및 자녀, 어린이 홈스테이 교육



## India Road

## 단비의 인디아 로드 3

“영원히 마르지 않는 눈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맑게 빛난다. 그것이 타지마할”

-타고르-



▲ 타지마할

##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 타지마할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지마할이다.

하얗고 둥근 형태의 지붕과 셀 수 없이 많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은 타지마할 고유의 상징이며 인도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타지마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등 많은 매체로부터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손꼽히는 탓에 늘 관광객으로 북적



▲ 멀리서 보는 타지마할

인다. 그러나 그 유명세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타지마할이 정확히 어떤 용도의 건축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타지마할은 인도의 황제 샤자한이 먼저 죽은 왕비인 뭇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궁전식 묘지로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이다.

내가 직접 본 타지마할은 실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가까이서 올라다보면 꼭대기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규모와 아름다움도 눈부셨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타지마할 외관의 보존도였

다. 깨끗하고 하얗게 빛나는 촉촉한 대리석들은 수백년의 시간을 지나왔다 하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청결도와 보존 상태가 좋았다. 정부의 관리 영향도 있겠지만 나무나 돌에 비해 대리석이 가진 보존력의 힘도 크게 작용한 듯 보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타지마할을 좀 더 운치있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10분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감상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멀리 비치는 석양이 타지마할의 실루엣에 우아함을 더하고 왕과 왕비의 로맨스를 추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⑥

## 대나무(竹) 그리기

묵죽(墨竹)을 그리는데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줄기, 마디, 가지, 잎 순으로 그린다.



마디는 줄기를 다 그린 후 마무리 한다.

## 1)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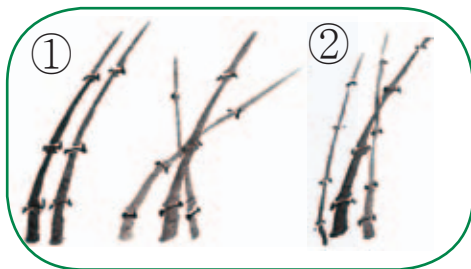
줄기는 아래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방법이 있으나 아래서 위로 그리는 방법을 배워 보기로 하자.

대나무는 거의 세운붓(직필)으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뿌리 쪽부터 올라갈수록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그린다.

우선 붓을 잘 씻고 얇은 먹을 찍고, 조금 닦아내고, 중먹을 먹인 후 그 끝에 짙은 먹을 찍어 그린다. 이렇게 조묵(調墨)이 되면 줄기가 둥근 맛이 난다.

## 梅蘭菊竹



① 잘못된 예 : 줄기 굵기가 같거나, 마디의 높이가 같거나, 줄기 간격이 동일하거나, 줄기가 서로 교차점이 같거나 하면 잘못된 구도다

② 잘 된 예 : 간격, 굵기, 마디, 높이가 서로 다를 때 잘된 구도다.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비슬대전,  
신라비슬대전,  
경남비슬대전,  
한국화부문수상

## 불/교/설/화

## 청주 무심천에 나타난 일곱부처 이야기



설화 : 조귀자  
삽화 : 김홍균

때는 조선 고종 광무(1901년).

왕후 엄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을 하며 문풍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엄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색영롱한 안개 속에 칠색 선명한 무지개가 자신의 처소인 내당을 향해 뻗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엄비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방으로 들어와 정좌 한 후 밖을 보았다. 이번엔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일곱 미륵 부처님이 일곱 선녀의 부축을 받으며 내당을 향해 오고 있었다. 엄비는 얼른 일어섰다. 주위에는 온갖 나비와 새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춤을 추고 있었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렸다. 부처님 일행이 내당에 도착하자 합장 삼배를 올렸다.

“그대가 바로 불심 지극한 엄비요?”

“예, 그러 하옵니다.” 엄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답했다. “부탁이 있어 이렇게 왔소.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도오. 하루속히 우리를 구하고 절을 세우 안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하오.” 부처님 눈가엔 이슬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어느 곳에 계시오며 무슨 사연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내용은 청주 군수가 잘 알고 있소.” 이렇듯 간곡히 당부의 말을 남긴 미륵부처님들은 영롱한 안개를 일으키며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합장한 채 부처님이 사라진 쪽을 한동안 바라보던 엄비는 부처님을 하루속히 구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힘드시오 다급했으면 저토록 눈물까지 흘리시며 당부하셨을까?” 어느 날과 달리 오늘날과 기침 시간이 늦어지자 시종 삼월이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엄비의 늦잠을 깨웠다. 부처님을 친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엄비는 나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거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엄비는 마치 꿈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 문밖으로 나와 일곱 부처님이 사라진 서쪽과 무지개가 피어오르던 하늘을 보았다. 그러나 허공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엄비는 간밤의 꿈 이야기를 왕에게 고하고는 청주에 사람을 보내 달라고 청했다. 한편 엄비의 꿈 이야기와 함께 이는 대로 상세히 조사하여 고하라는 어명을 받은 청주 군수 이회복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사흘 전 내가 꾸 꿈과 흡

사한 꿈을 엄비 마마께서도 꾸시다니...” 엄비가 일곱 부처님을 꿈에서 친견 하던 날 밤, 청주 군수 이회복은 깊은 잠 속에 스르르 방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장삼이 온통 흙탕물에 젖은 스님 한분이 바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다. 놀란 이회복은 스님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이마에선 피가 흘렀고 목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 지금 서쪽 큰 늪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어 구해달라고 이리 왔으니 귀찮게 여기지 말고 힘껏 도와주시오.” 말을 마친 스님은 홀연히 서쪽으로 사라졌다. 이회복은 서쪽을 향해 합장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다 잠에서 깨어났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게 생각하던 중 어명을 받은 그날로 사람을 풀어 서쪽 큰 늪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날 오후 조사 나갔던 나졸들은 큰 발견이나 한 듯 군수에게 고했다. “서쪽으로 가보니 「무심천」이라 부르는 황량한 개울이 있는데 그 주변에 머리 부분만 밖으로 나와 있는 돌부처 한 분이 늪과 잡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회복은 급히 무심천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낚시꾼들이 석불을 의자삼아 걸터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늪에 묻혀 있을지언정 부처님이시거늘 그토록 무례할 수가 있는가.” 하며 호령을 했다.

“살피보지 않아 미처 몰랐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니 한번만...” 얼굴이 붉어진 낚시꾼은 무안하여 도구를 챙겨는 채 자리를 옮겨갔다. 이회복은 부처님을 조심스럽게 파내었다. 석불은 이마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사람을 동원하여 무심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7일을 퍼내니 무심천에서는 모두 일곱 분의 미륵부처님이 출현했다. 너무 기뻐 급히 왕실에 상고문을 올렸다. 왕실에서는 신기한 사실에 엄비의 불심을 높이 칭송하는 한편, 청주 군수 이회복에게 많은 재물을 내려 절을 세우고 칠불을 모시도록 했다. 그 절이 바로 오늘의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 변에 있는 용화사다. 신라 선덕여왕 대에 창건됐다가 대홍수로 인해 부처님이 개울에 묻힌 지 천 여년 만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용화사 복원 이후 청주 지역엔 자주 있던 홍수 피해가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미륵칠불은 지방문화재 14호로 지정돼 있다.

『무심천』은 부처님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무심한 세월만 흘렀다 하던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대동농원 최첨단 아로니아 가공 공장 준공

위생적인 가공을 통해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충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아로니아 생과출시1kg 8천원 (전국 무료배송)



# 여름밤의 휴양지 도심 고궁 특별관람

경복궁 9.17~30(12일간), 9.8(경복궁) 오후 2시 예매 시작



▲ 창경궁 통명전

문화재청은 8월 경복궁에서 예정되었던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을 창경궁까지 추가로 확대 시행하고, 경복궁은 6일간 개방 기간을 늘리기로 하였다.

창경궁은 8월과 9월에 조명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 시행으로 야간 관람 일정이 없었으나,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피서객들이 도심 속 궁궐에서 야경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8월 중 6일간 특별히 개방하기로 하였다.

2017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경복궁 8월 13일~9월 2일(18일간 / 815, 822, 829 휴무)까지, ▲창경궁 8월 13일~19일(6일간 / 814 휴무)까지, ▲경복궁 9월 17일~30일(12일간 / 919, 926 휴무)까지 개최되며, 이로써 2017년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야간 특별 관람 시간은 ▲8월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까지), ▲9월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 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 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 기간에 맞춰 국립고궁박물관도 야간에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818 제외). 사전 예매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궁중유물 전시 관람과 함께 박물관 야외 마당도 쉼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2017년 8~9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유료)과 한복 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8월 11일(경복궁·창경궁)과 9월 8일(경복궁) 각각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문의 02-3700-3000~1

# 관정(灌頂)

교정부장 법일

가관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자 아무개가 지금 부처님께 청하오니, 삼매(三昧) 다라니(陀羅尼) 공덕수(功德水)로 몸과 마음을 관정하시어 삼업(三業)이 청정해지고 행원(行願)이 구족(具足)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곧 물병을 들어 쇠뿔과 향수로 만든 단(壇) 위에 올라가 옷을 벗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물병을 들어 머리 위에 뿌리며 입 밖에 내어 말하라. 서방(十方)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시어, 저 아무개에게 모든 보살의 행원(行願)을 베풀어 주소서.

관정(灌頂)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아비제카(abhisheka)를 한역한 것으로 '정수리에 물을 끼얹는 것'을 말한다. 관정의식(灌頂儀式)은 원래 인도에서 제왕이 즉위식(卽位式) 때나 태자를 책봉할 때에 사해(四海)의 물을 길어와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훌륭한 왕이 될 것을 축원하던 의식(儀式)에서 비롯된 것인데 밀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의 전송(法傳承)과 제자로

서의 자격을 인가(認可)하는 데에 이 의식을 행한다. 관정을 통해 스승이 지닌 모든 법을 아낌없이 고스란히 제자에게 전해지게 된다.

관정은 밀교수행의 입문에서 성불(成佛)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단계로서, 밀교에서는 이러한 관정을 그 어떤 의식보다도 중시한다. 관정을 통하여 수행에 입문(入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 단계씩 경지를 높여 성불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밀교의 관정이다.

밀교관정의 종류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태장계의 3부관정(三部灌頂)과 금강계(金剛界)의 5부관정(五部灌頂)으로 나눌 수 있다.

태장계 3부관정중 사업관정(事業灌頂)이 금강계 5부 관정에서는 사업관정(事業灌頂)과 결연관정(結緣灌頂)과 전법관정(傳法灌頂)으로 구분이 되었다. 또한 티베트의 관정에서는 사업관정이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결연관정과 전법관정 내에 보병과 지혜 등의 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신임 문화재청장

## 김종진 임명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문화재 행정 전문가



김종진 문화재청장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인사를 8월 7일 단행했다. 신임 문화재청장에 김종진 전 문화재청 차장이 임명되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8월 29일 세종시 종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1956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 한 후 9급 지방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문화재 차장을 거쳐 차관급 청장에 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동안 주요 보직을 거치며 조직 장악력이 높고 서울 풍납 토성 사적 지정 등의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 업무와 내부사정에 능통하며, 주경야독으로 체득한 문화재에 대한 깊은 식견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화재 정책과 행정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17 명원세계차박람회 개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B홀

전통차를 비롯해 새로운 우리 차, 세계의 차를 맛보며 다양한 차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17 명원세계차박람회'가 개최된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B홀에서 열리는 2017 명원세계차박람회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와 인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성발달은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생애적인 과정에서 진행된다. 다도와 다례는 바른 생각과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전 생애 과정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명원세계차박람회에서는 차와 인성교육에 대한 강연과 체험을 비롯해 다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차와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릴레이 특강'이 마련된다. '인성이 실력이다'의 저자 조벽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일본차와 인성교육 현황' 백석조, '차와 인성교육 사례담' 등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주제가 '인성'인 만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된다. 특설무대에

서 진행되는 '다례와 예절문화 시연'은 세계 차문화 예절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명원세계차박람회는 해를 거듭하며 청소년 다례체험, 차와 인성교육 특강, 한국전통다례시연을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브렉퍼스트' 티가 최초로 공개된다.

세린 존스톤 호주 티마스터즈 대표와 우리나라 차 생산자들이 함께 개발한 브렉퍼스트 티가 이 자리를 통해 처음 소개된다. 또 '세계 티상품과 블렌딩 마켓쇼'를 통해 최근 음료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블렌딩티의 흐름을 전하고 사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명원세계차박람회는 해를 거듭하며 청소년 다례체험, 차와 인성교육 특강, 한국전통다례시연을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요즘 음료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티베리에이션 음료체험 등은 젊은층과 교감하기 위한 방편이자 새로운 차문화 정립을 위한 시도"이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우리 차생활과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며 차문화와 인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로 우리 차의 세계적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며 "명원세계차박람회는 온 가족이 차를 대하는 가족의 행사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여름방학의 마지막을 '차의 날'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한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을 제정해 차산업과 차문화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명원세계차박람회에는 한국 차의 선구자인 명원 김미희 선생의 차문화 복원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차문화 산업에 기여해온 인물들에게 시상하는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 어르신밀집공원8곳에서

## 찾아가는어르신문화예술공연

어르신 문화공연을 공원에서 즐겨보세요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공원으로 찾아가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가 함께 추진하는 '2017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이 서울 탑골공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 대표 공원 8곳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탑골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대구 경상감영공원, ▲인천 자유공원, ▲광주 사직공원, ▲대전 서대전공원-우리들공원, ▲울산 태화루 등이다.

'2017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은 100세 시대, 행복한 문화 노후를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반적인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과 달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연자가 되어 같은 세대의 관

객들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어르신들이 펼치는 공연도 학춤, 퓨전국악, 아코디언 연주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예술적 재능을 쌓아올린 어르신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연령대의 공연자의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 관람객들에게는 주체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 11년 차를 맞이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문화 참여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의 어르신 8,000여 명이 3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누리집(www.senior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총지종 흥국사 만다라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



### 가정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만다라요양원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정성과 사랑으로 모십니다

|       |               |
|-------|---------------|
| 입소정원  | 6명(선착순 입소)    |
| 본인부담금 | 월 35만원 - 40만원 |
| 입소대상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

063 - 224 - 43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흥국사 (효자동 서부시장)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령

# 거대한 불사와 풍부한 불교출판물

## 승속의 일체로 오늘의 대만불교를 이루다

왕복진 회장의 초청으로  
대만재승법회에 참가하다.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타이완 타이중 삼보호지회(台中三寶護持會) 회장인 왕복진(王福進) 회장의 초청으로 인선 통리원장과 서강 사무국장 등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다.

왕 회장은 본지에서 주관한 국제제가불교포럼(ILBF)과 인연이 되어 그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는데 그의 두 딸도 ILBF에 여러 번 참석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왕복진 회장은 타이완의 중부 도시 타이중 재가불교활동의 중심인 타이중 삼보호지회의 회장을 6년에 걸쳐 두 번이나 역임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이를 기념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고즈넉이 한책방에서 수준 높은  
불교서적을 만나다.

대만도 지진이 심한 곳이라 그다지 높은 빌딩이 보이지 않는다. 한 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우리와 동급으로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나 국력이 우리에게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졌다.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운순하고 친절하며 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사람들이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대만에 오면 마음이 비교적 편하다. 대만사범대 내의 게스트룸에 숙소를 정했다. 저녁 먹고 산책삼아 옛날에 살던 골목을 여기저기 기웃거리 보았지만 많이 변해서 어느 곳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책방도 여러 곳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옛날의 영세한 한책방 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거의 세책방 수준으로 규모도 커졌고 깔끔하니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

불교서적 코너에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다. 대만은 불교계가 워낙 센 곳이라서 불교서적의 수준도 높고 책도 아주 보기 좋게 잘 만든다. 부럽다. 우리나라는 불교서적 독지증이 워낙 없다 보니 불교출판사들도 고전 한다. 저자가 일정량 이상 팔아주지 않으면 책을 출판해도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 출판을 선택 해주지 않으니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다천출판사(大千出版社)

이번 탐방에서는 텐원푸(田運富), 장위링(張玉玲) 부부의 도움이 컸다. 장위링은 현재 ILBF 회장이며 사카디타 전회장이기도 한 불교계 유명인사이다. 우리 종단과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으로 대만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대만 정치대 교수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착한 다음날 이들 부부가 다천출판사(大千出版社)와 세계종교박물관에 데려다 줬다.

다천출판사는 대만의 손꼽는 불교출판사인 대표인 양충밍(梁崇明)사장과는 학술대회 교류를 통해서 알고 지냈는데 신심이 지극히 돈독하고 오직 불교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말 귀하고 값진 책들을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많이 출판한다.

특히 남방불교와 티벳 밀교에 대한 책을 많이 출간하고 있다. 양사장이 춘텐(春天)이라는 채식당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곳 주인도 역시 돈독한 불자였다.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며 오직 불심이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대만에 가면 도처에 이렇게 신심있는 불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양사장의 식사 초대에 응하면서 대만 불교출판계의 경향과 불교서적에 대하여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움이 컸다. 여기서는 책을 출판하면 아무리 적게 팔려도 5~6000권 정도는 판매된다니 우리나라 불교출판사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그만큼 책임은 불자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도 공부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종교박물관

신베이(新北)시에 있는 세계종교박물관에는 전시회 준비와 박물관 확장으로 인하여 공사 중이었는데 잠시 휴관 중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개방을 해주었다.

이곳은 백화점 두 층을 사서 만든 곳으로 대만 영취산 무생도량의 심도(心道)스님이란 분이 설립한 곳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을 한 자리에 전시하여 세계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교 간의 우

호를 통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세계의 대표 종교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 사원과 예배 대상 등을 미니언처로 제작을 하여 보여주고 사진과 실물로 이를 보완하였는데 크지 않은 공간을 활용하여 이렇게 잘 꾸민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더구나 한 스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불사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

더구나 교묘한 건축으로 은연 중에 불교의 화엄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설계는 한 두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았다. 그만큼 대만 불교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다.

우리 종단도 힘을 모아 전 세계의 불교를 한 눈에 보여준다던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삼아서 박물관을 만들어도 될 듯 싶다.

남림니승원(南林尼僧苑)

타이중의 남림니승원(南林尼僧苑)은 비구니 전문도량으로서 70여명의 비구니들이 상주하는 곳이었다.

수십만 평의 부지 위에 건설된 이 니승원은 웅장한 건물규모와 정성어린 상주물의 배치로 아름답고 깨끗한 대만 최대의 비구니 도량으로 자부할 만



한 곳이었다.

아울러 대만 내외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림 도량 하나만으로서도 대만 불교의 저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불과 7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만으로 이렇게 웅장한 불사를 하다니 우리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불사에 임하는 이 스님들의 마음이집이 오늘의 이런 큰 불사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둥 하나를 만들어도 천년 이상을 갈 훌륭한 재목으로서 만들고 불상을 하나 조성해도 최대한 정성과 노력을 들여 가장 훌륭한 것을 만들겠다는 원력이 오늘의 남림니승원을 있게 한 것 같았다. 200년 된 삼나무를 구하여 불단을 조성한다든가 백년에 1센티만 자라는 나무로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가장 훌륭하고 장엄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런 결과를 낳았으리라.

타이중 전국공불재승법회  
(全國供佛齋僧法會)

30일에 거행된 타이중 전국공불재승법회(全國供佛齋僧法會)는 이번 일정의 백미였다. 재승법회는 공승(供僧)법회라고도 하는데 대만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법회가 거행되지만 타이중의 재승법회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했다.

대만 중부를 거점으로 하는 삼보호지회(三寶護持會)가 주관을 하는데 우리를 초청한 왕진복 회장이 바로 이 삼보호지회의 회장이다.

이 행사는 대만의 계엄령이 풀리고 대중 집회가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 어언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법회이다. 처음에는 재가 거사들의 모임으로 소규모로 출발했는데 매년 3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만 불교 최대 행사 중

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에도 6600여명의 출가승들과 자원 봉사자 4500명 등 총 인원 3만 여명이 타이중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거행되었다.

말로만 듣던 이 법회를 귀빈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 내려다보니 실로 어마어마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중국 전통 복장의 유니폼을 입고 각자의 역할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하며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예행연습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신심이 정말 놀랍기만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승려들이 간혹 초청을 받아도 이렇게 공양 받는 모습만 보고 그들이 공양을 받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신심과 노력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불교계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대만 불자들은 출가자나 재가자 할 것 없이 계행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회 분위기가 계행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는 참 오래도록 번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 증거로서 현재 대만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가 몰려 들어 포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광산사나 자재공덕회, 범고산사, 중대선사 등 메이저 급의 불교 종단 이외에도 구석구석 소리 소문 없이 불법을 호지하고 신심을 고취하며 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불자들이 즐비한 대만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바깥 세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론 대만불교도 전반적인 노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처의 불사 현장과 다양한 불교출판물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저력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것이라 믿어진다.

어쨌든 이번 행사 참가는 여러 모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주고 또 머리를 무겁게 만든 발전적 탐방이 되었다.

